

화해의 사람들

김동수 반희영 윤성 수현 선교사 76번째 아프리카 이야기

지난 6월 4일 - 8일 까지 아프리카 침례교 선교사 총회가 튀니지 (Tunisia) 에서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침례교 선교사님들과의 만남은 저에게 항상 기쁨의 시간입니다. 나라는 다르지만 같은 교단 선교사로서 늘 마음이 쓰이고 만남을 통해 서로간에 애뜻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튀지니, 세네갈, 잠비아, 짐바브웨, 마다가스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아프리

카 여러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고 사역을 나누고 함께 교제 하면서 새로운 힘을 충전받고 서로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심과 임재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특pecially 먼 땅 튀니지 까지 오셔서 저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격려해 주신 김형윤 목사님, 김중식 목사님, 김중성 목사님, 조수동 목사님, 손석원 목사님, 이재경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해 이번 총회가 더 풍성해 지고 저희들이 힘을 얻습니다.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시 제게 주신 삶의 터전인 남아공으로 돌아 왔습니다. 또한 더욱 열심히 사역할 것을 다짐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것 처럼 많은 비로 인해 감사하지만, 또한 곳곳에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많은 비율의 물가 상승으로 인해 범죄율도 아주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화와 희망의 열풍이 이곳에도 불어오길 소원해 봅니다.

이땅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넘치도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1. 아프리카를 섬기시는 많은 침례교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의 열매를 위해 ...
2. 한국교회의 아프리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기도와 후원을 위해...
3. 목회자 훈련원 사역과 어린이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위해..
4. 학교 방학중 코스타(한인 학생들을 위한 집회)에 참여하는 윤성이가 주님을 만나고 비전을 얻도록..(7/10-7/13)
5. 저희 가족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